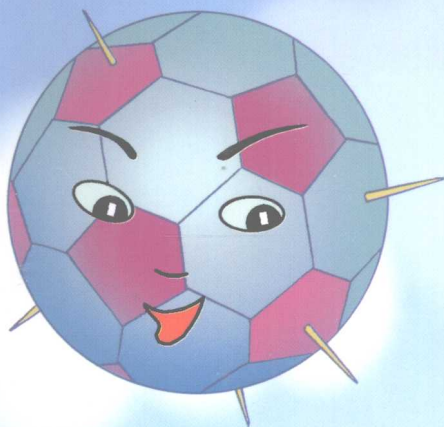


동화집

가시 돋는 뽕

주덕진 저



가시 돋는 뽕
엥탱이에
뽕 난 송아지
셈마저 모르는
부엉이...
퍽 궁금하죠
신비하고 황홀한
동화세계

연변인민출판사



동화집

가시 돋는 볼

주덕진 저



연변인민출판사

책임편집: 최동일

책임교정: 김홍화

기술설계: 정선숙

삽 화: 박창우

图书在版编目 (C I P) 数据

长刺的球: 朝鲜文 / 朱德振著. —延吉: 延边人民出版社, 2009.5

ISBN 978-7-5449-0593-0

I. 长… II. 朱… III. 童话-作品集-中国-当代-朝鲜语 (中国少数民族语言) IV. I287.7

中国版本图书馆CIP数据核字 (2009) 第069429号

长刺的球

出版: 延边人民出版社

(吉林省延吉市友谊路363号, <http://www.ybcbs.com>

<http://www.ybcps.com>)

印刷: 延边新华印刷有限公司

发行: 延边人民出版社

开本: 880×1230 1/32 印张: 5.875 字数: 150千字

标准书号: ISBN 978-7-5449-0593-0 (民文)

版次: 2009年5月第1版 2009年5月第1次印刷

印数: 2000册 定价: 15.00元

如发现印装质量有问题, 影响阅读, 请与印刷厂联系调换。

머리글

최문섭

어린이들은 아동문학작품에서 동화를 가장 즐겨 읽는다. 그것은 동화가 어린이들에게 가장 가깝게 다가서기 때문이다. 동화는 이야기형식으로 씌여진 아동문학의 한 형태로서 어린이들의 심리특성과 기호에 알맞게 주로 환상이나 의인화의 수법에 의해 씌여진다. 어느 사전에서는 동화는 상징과 과장과 랑만의 날개를 타고 앞날로 날아가는 념원의 새이기도 하다라고 기술하였다. 동화의 세계는 현실세계보다 더욱 아름답고 자유로운 세계이다. 이 세계에서는 동물이나 각종 물건들이 사람이나 마찬가지로 말을 하고 사람과 평등하게 대화를 나눌수 있고 구애없이 의사를 소통시키며 환상의 세계에서 마음대로 움직이며 날아엘수 있다. 때문에 어린이들은 동화의 유혹적인 세계를 즐기면서 동화나라에 빠져들어 자기들의 원하는것과 뜻을 펼치기도 한다.

이번에 동화작가 주덕진 선생님은 공화국 창건 60
돛을 맞으면서 동화집 《가시 돋는 뽕》을 들고나와 어
린이들에게 선물하였다.

주덕진 선생님은 중학교를 졸업하고 농업생산로동
에 종사하면서 시종 동화창작을 견지하여온 연변에 몇
안되는 농민작가중의 한 사람이다. 그는 한시기 성분
문제로 인하여 사람들의 기시와 랑대를 받으며 사회의
최하층에서 억울함을 당하며 어려운 나날을 보내면서
도 끈질긴 의력으로 문학수업을 견지하면서 시종 창작
의 붓대를 놓지 않았다.

그는 1981년 동요 “나무를 심어요”를 발표하면서
문단에 데뷔하여 주로 가사와 소품, 동화를 창작하면
서 주목할만한 성과를 올리였다. 그는 동화 “꿀꿀이와
꼬꼬수탉”으로 주라지오문학상을, 가사 “어데로 가느
냐”로 “문명레절 3월애”군중가요 1등상을, 가사 “사랑
의 칠색가락”으로 2008년 국가급우수매주일가상을,
재담 “찍어야지”로 “생태예술컵”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하였다. 하여 그는 해당 부문으로부터 “주문화활동적
극분자”와 “길림성과외문예창작적극분자”의 영광스런
칭호를 수여받았다. 이것은 그의 문예창작에 대한 마
땅히 받아야 할 긍정이다.

그의 동화작품중에서 “세 친구”, “보물방울”, “충
명한 야옹이”, “경보기와 소방기”, “노래 배우는 붉은

수탉”, “삼림속의 공판대회” 등은 비교적 훌륭한 작품이라고 할수 있다. 그의 이런 동화작품에서는 주로 친구지간의 사랑과 의리, 교오자만을 삼가하며 서로 돕고 합심하여 일하는 아름다운 품모, 가짜와 거짓을 멀리하고 진짜와 성실을 추구하는 깨끗한 마음가짐, 충명과 지혜로 우매와 무지를 전승하는 슬기로움, 인간들이 자연과 생태환경을 파괴한데서 당하는 보복 등을 주제로 상징과 의인화 수법으로 동물과 인간, 자연과 현실세계의 무변광야를 마음껏 넘나들면서 어린이들을 아름답고 황홀한 꿈의 세계로 유혹하며 환상의 나래를 마음껏 펼치게 한다.

나는 주덕진선생님의 동화집 《가시 돋는 뽕》의 출간에 제하여 가장 열렬한 축하의 박수를 보내며 자라나는 어린 친구들에게 이 화집을 추천하는바이다. 어린이들은 재미 고소한 주덕진선생님의 동화집을 읽으면서 마음이 깨끗하게 맑아짐을 느끼게 될것이며 생활에서 유익한 교훈을 섭취하게 될것이다.

끝으로 이름없는 한 농민작가의 동화집출판을 위하여 물심량면으로 도와나선 주, 시 당정부문의 유관 지도자들과 연변인민출판사 지도부와 편집일군들에게 심심한 사의를 드린다.

2009년 4월 1일

연길에서

자 려



미옥한 꿈	1
툼과 줄칼	5
구랭이를 죽친 알락이와 달락이	8
메뚜기농사	14
엉덩이에 빨난 송아지	17
비닐꽃과 호박꽃	36
멍멍이의 집짓기	41
충명한 야옹이	47
허수아비	53
경보기와 소방기	60
세 친구	64
노래 배우는 붉은 수탉	74
영호가 그린 돈	85
잠을 깬 꿀꿀이	96

가시 돋는 뿔	107
소보다 더 둔한 인간	123
삼림속의 공판대회	128
메송장개구리의 일화	151
보배방울	163
저자의 말	176



미옥한 곶

옛날, 울울창창한 수림속에서 굶주린 곶 한마리가 먹이를 찾아 헤매고있었습니다. 굶은지 며칠이 되는지라 배가 등에 다가붙고 사지가 나른하여 더 걸을수 없게 된 곶은 행- 하고 김빠진 소리를 내며 땅에 털썩 주저앉고말았습니다.

그런데 홀연 어디선가 향기로운 꿀냄새가 풍겨오는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게 웬 떡이냐.) 하고 정신을 번쩍 차린 곶은 벌떡 일어나 꿀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안 가서 곶은 한 구새먹은 나무밑둥에 가섰는데 한길쭈름 되는 높은 곳에 뚫린 구멍으로부터 꿀벌들이분주히 드나들고있는것이 보였습니다.

“흥, 그러면 그렇겠지.”

인젠 꿀을 먹게 되었다고 기뻐난 곶은 훌쭉한 배를 어루만지며 닭알 같은 군침을 꿀꺽 삼키었습니다. 그도

그렇것이 한창 목젓이 방아를 찢는 판이었으니깐요.

그런데 나무에 둥둥 달아놓은 망작만큼한 돌이 중뿔나게 구멍을 반쯤 막고있는것이 정말 알미웠습니다.

“쳇, 그까짓거…”

자기 힘만 믿고있는 곰은 그런것쯤은 대수롭게도 여기지 않았습나다.

구멍을 막고있는 돌을 밀어던지면 꿀을 쉽사리 먹을수 있으리라고 생각한 곰은 곧추 일어서서 앞발로 큰 돌을 뒤로 밀어젓히고는 별들이야 쏘든말든 주둥이를 구멍에 밀어넣었습니다.

그런데 밀려갔던 돌이 되돌아오며 뒤통수를 때릴 줄이야 곰인들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꿀맛을 보려다가 한때 얻어맞은 곰은 씹씹거리며 좀더 힘을 주어 돌을 뒤로 뿌리쳤습나다. 돌이 다시 되돌아오며 뒤통수를 치는통에 곰은 마음 놓고 꿀을 먹을수 없었습니다.

“흥, 네가 다 훼방을 놓아?”

곰은 시끄러운듯 돌을 번쩍 들어 멀리로 던지고는 성급히 꿀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멀리 간줄로만 여겼던 돌이 되돌아오며 또 한때 단단히 안기는통에 주둥이가 나무에 가 딱 부딪치며 눈에서는 불꽃이 번쩍 일었습니다.

이상한것은 곰이 힘주어 돌을 던질수록 돌은 더 호되게 곰을 때리는것이였습니다. 곰은 몇번만에 주둥

이가 터지고 뒤통수가 사발만큼이나 부어났습니다. 곰은 돌을 당장 박산내지 못하는것이 한스러웠습니다. 게다가 뽕뽕거리며 마구 덮쳐들어 쏘아대는 별들때문에 눈마저 제대로 뜯수 없게 된 곰은 속이 부글부글 괴여올랐습니다.

“이 어른이 네까짓것들을 못이겨? 이번엔 어림도 없지!”



성이 날대로 난 곰은 으르렁거리며 젓먹던 힘까지 다 내여 영영 다시 돌아오지 못하게 할 모양으로 돌을 힘껏 떠밀었습니다. 돌은 과연 저 멀리로 휙 날려갔습니다.

게걸스러운 곰이 눈이 아홉이 되어 꿀을 몇모금 삼키었을 때였습니다. 썩－ 하니 되돌아온 돌이 “탕!” 하고 웅글진 소리를 내며 곰의 꿀을 본때스레 짓궂어 놓았 습니다.

쇠불이도 견디여내기 어려운 이 무서운 타격에 제 아무리 박달나무 같은 곰의 골이기로서니 어찌 견디여 낼수 있었겠습니까. 치명적인 타격을 받고 골이 묵사 발이 된 곰은 의아한 눈길로 자기의 적수－ 돌을 바라 보던채로 굳어지고말았습니다.

하여 미웁하고 고집이 센 곰은 사냥꾼이 달아놓은 돌에 얻어 맞아 꿀도 먹지 못한채 죽고말았습니다.

1983. 8. 20

톱과 줄칼

톱과 줄칼은 주인의 공구상자에서 함께 살았습니다. 그러나 톱은 진작 줄칼을 아니꼽게 보아왔으므로 그들사이에는 화목하지 못하였습니다.

한것은 줄칼이 찍하면 달려들어 톱의 이발을 쓸어 놓기때문이었는데 그럴 때마다 톱은 줄칼이야말로 남을 못살게 굴기 위해 세상에 태어난 악한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오늘도 주인의 분부를 받은 줄칼은 여느때와 마찬가지로 그 줄가시가 가득 돋친 몸으로 톱의 이발을 마구 쓸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날카로운 줄가시가 돋친 몸이 자기의 이발을 쓸 때마다 톱은 “애개개, 애개개” 하고 연신 비명을 질렀으며 온몸을 오돌오돌 떨었습니다.

그렇지만 줄칼은 톱이야 아파하건말건 아랑곳없이 이리 끌고 저리 끌며 하고싶은대로 다하였습니다.

살점을 뜯어내는 듯한 모진 아픔을 참고 톱은 눈물을 흘리며 “애, 줄칼아, 그만 쓸면 안되니?” 하고 통사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줄칼은 “안돼, 나에겐 그럴 권리가 없어.” 하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면 좀 사랑사랑 하렴.”

톱은 재차 사정하였습니다.

“그러면 너의 병을 치료할수 없어.”

이렇게 대답한 줄칼은 좀처럼 사정을 두지 않았습니다.

사실 톱에게는 일하고나면 이발이 무디여지는 병이 있었는데 그럴 때마다 줄칼은 조금도 게으름없이 그의 병을 치료해주었던것입니다.

한차례의 치료를 거치고나면 톱은 원기 왕성하여 걸싸게 일할수 있었습니다. 주인은 톱이 일을 잘한다고 수시로 칭찬을 해주었지만 줄칼은 오히려 온몸이 상처투성이가 되어 회복될줄 몰랐습니다.

이날 상자속으로 돌아온 톱은 진통을 겪고난 뒤에 겨우 겨운 기분을 느끼며 한쪽에서 말없이 고통속에서 모대기고있는 줄칼이 측은하게 여겨졌습니다.

“애야, 보아하니 너의 몸은 말이 아니구나. 하필이면 그런 고된 일을 찾아할건 뭐니?”

톱이 관심조로 말했습니다.

그러자 줄칼은 “이건 나의 천직이야.” 하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톱은 톱대로 리해가 되지 않는듯 머리를 절레절레 저을뿐이었습니다.

날이 갈수록 줄칼의 몸은 수척하여졌으며 일하기도 더욱 힘들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하루, 톱이 일하러 갔다오니 줄칼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함께 있던 친구가 보이지 않자 톱은 마음 한구석이 허전함을 느꼈습니다.

드디어 톱도 병이 더해져서 일할수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그의 병을 치료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톱은 이때에야 줄칼의 사랑을 받던 그때를 생각하며 아프기는 했지만 새 힘을 주던 그 줄칼이 그리웠으며 훌륭한 친구를 고깝게 생각했던 자신이 미련했음을 가슴 아프게 느꼈습니다.

1986. 5. 11.

구렁이를 죽인 알락이와 달락이

양지바른 옥수동에 달락이라는 수탉과 알락이라는 암탉이 살고있었습니다. 부지런한 그들은 자기의 두손으로 생활을 꽃피우며 재미있게 살아가고있었습니다.

어느덧 추운 겨울이 가고 따뜻한 봄이 오자 알락이는 알을 낳기 시작하였습니다. 보배둥이가 있게 되자 그들은 더없이 기뻐하였으며 금이야 옥이야 하고 귀여워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하루 일발에 갔다 돌아와 동우리를 들여다보던 그들은 그만 눈이 휘둥그래졌습니다.

그처럼 애지중지하던 보배알 네알중에서 두알이나 보이지 않았던것입니다.

웬 영문일가고 이곳저곳 찾아보아도 찾지 못한 알락이는 실망한 나머지 “아이고, 내 보배둥이야!” 하며 구슬프게 울었습니다.

보배둥이를 잃은것으로 하여 가슴이 쓰린데다 알락
이마저 구슬프게 우니 달락이의 마음은 실로 괴로웠습
니다. 그러나 그는 강심을 먹고 눈물을 쓱 닦았습니다.

“여보, 인젠 그만 우오!”

달락이가 말하였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내 보배둥이야-”

알락이는 더욱 슬프게 울었습니다.

알락이가 슬피 우는 소리에 달락이는 구곡간장이
다 녹아내리는듯했습니다.

“여보, 그만 울라는데두, 울기만 해서야 되오?”

달락이는 눈물을 삼키며 이렇게 알락이를 달래었
습니다.

“그럼 울지 않고 어찌겠어요?”

알락이는 울다말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일이 이렇게 된바에는 방법을 대야지 않겠소?”

“방법, 무슨 방법이 있어요?”

알락이는 울음을 그쳤습니다.

그들은 방법을 의논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튿날아침, 달락이와 알락이는 남은 보배알 두알
을 깊숙이 감춘후 여느때와 마찬가지로 일하러 가는척
하고 앞문으로 나갔다가 살며시 뒤문으로 들어와 옷방
에 놓인 옷장안에 숨었습니다. 그들이 숨은지 한식경
이 지나자 기척소리가 나더니 앞문이 살랑 열리는것이